

한전, 초고압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준공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9일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연면적 8104㎡ 국내 최대 '초고압 지중케이블 실증시험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식경제부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 시험장은 차폐실을 포함한 실내 고전압 시험장과 초고압 케이블 및 접속함에 대한 장기신뢰성 평가시험, 수명예측시험, 현장모의 시험뿐만 아니라 지중분야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실계통과 동일 조건의 시험용 지하 전력구를 설치해 초고압 지중케이블 관련 개발자재에 대한 국제 품질 공신력 확보와 지중케이블 분야 운영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한전은 이 실증 시험장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한국인증기구(KOLAS)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화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향후 이 시험장에서 다양한 국제 공인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케이블분야 동남아 시험허브로서 국제 표준화 및 인증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초고압 케이블 해외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게 되면 향후 5년간 초고압케이블 인증시험료 60억원과 연구개발 실증시험료 40억원 절감 등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전-원자력연, SMART사업 협약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지난달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SMART 사업 출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는 2050년까지 700여기, 3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SMART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다.



UAE 두바이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일행 신고리 건설 현장 방문

상업용 원전 및 담수발전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Mr. Saeed Mohd Ahmad Al-Tayer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지난달 4일 고리 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고리원전 건설현장을 둘러보았다.



두바이 방문단은 홍보관 귀빈실에서 고리원자력본부 원전운영 및 건설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석유 등 자원고갈에 대비한 원자력 중심의 프로젝트 건설 분야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보관을 관람한 일행은 고리전망대에 올라 건설현장을 조망한 뒤 신고리 1호기 주 제어실 및 터빈실을 견학하고 APR 플라자로 이동해 신고리 3,4호기의 건설개요와 APR의 특징, 신기술 공법 소개 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

한수원 경영평가 3년 연속 1위

한국수력원자력이 2009년 발전회사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아울러 2009년 최초로 회사평가와 분리평가한 기관장평가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발전회사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최초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최고의 성과창출 기업임을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평가 결과 청렴도지수, 고객만족도, 발전원가 절감 등 계량 부문과 경영전략, 경영선진화 등 비계량 부문의 거의 전 부문에서 1위를 획득해 회사평가와 사장평가 동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 여수2호기 보일러드럼 상량식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4일 장도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사업 보일러드럼 상량식을 개최했다.

여수화력 2호기 설비개선사업은 현재의 중유발전소를 국내 최대용량의 340mw급 순환유동층 석탄화력발전소로 개조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5월 착공 후 보일러 기초공사, 보일러 철골 입주 등의 주요 공정을 거쳐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설비인 드럼의 상량식을 가졌다.

내년 9월 상업운전 예정인 여수화력 2호기가 준공되면 고가연료인 중유 대신 저렴한 석탄 전소 보일러로 개조돼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여수 산업단지내 전력수급 불균형 및 송전계통 특성으로 인한 국지적 전압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전력공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순환유동층발전은 비교적 저온의 보일러에서 내부가스를 순환시키면서 태우는 발전 방식으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중부발전-전기안전공사, 해외 진출 협력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발전사업의 공동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해외발전사업 관련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교환, 해외 발전소의 기술교육, 해외발전설비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분야 공동 진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외발전사업의 정보 공유 등의 상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서부발전, 여름철 전력공급 안전 다짐



한국서부발전은 경기회복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어느 때보다 여름철 전력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부발전은 여름철 전력 피크기간 중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소에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체제로 돌입할 예정이며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와 삼척 LNG저장탱크서 전력생산 '첫 시도'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7일 가스공사 대회의실(경기도 분당)에서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사업은 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강원도 삼척의 LNG생산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LNG저장탱크에서 자연 기화하는 천연가스를 활용, 연료전지나 냉열발전 등에 쓴다는 구상이다.

BOG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LNG탱크에서 증발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 공기속 산소와 결합시켜 화학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냉열발전은 LNG가 기화할 때 방출하는 냉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만 상용화됐다.

이 같은 발전방식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부발전과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총 50만k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한전 KPS, 「2010 한국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

“고객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정비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

한전KPS(사장 직무대행 유승봉)가 지난 6월 23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0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고객만족경영의 우수성을 대외로부터 인정받았다.



공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한전KPS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아프리카 수단 등 세계 각지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UAE 원자력발전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모기업인 한국전력과 공조하여 설비정비 및 현지 운영인력양성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수주에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 초 한전KPS는 “녹색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VISION 2020’을 선포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Globalization 강화, 사업영역의 수평/수직 다각화, Enabling 체계 구축이라는 4대 중장기 전략방향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우디서 16억 달러 발전소 수주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수에즈 그룹(Suez Group)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발전용량 1만729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수주에 성공했다.

이 공사는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발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사우디 국영전력회사(SEC)가 시행했으며,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Riyadh)에서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두루마(Dhuruma) 지역에서 이달 공사에 착수, 2013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공사에서 가스 및 스팀터빈, 폐열회수보일러 등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공급, 설치,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도급방식으로 시공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은 사우디 국영 전력회사(SEC)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신월성원전 2호기용 증기발생기 출하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4일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설치될 1000MW급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 증기발생기 제작을 마치고 창원공장 사내부두를 통해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한 증기발생기는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에 들어가는 설비로는 마지막 설비이다.

한국표준형 원전은 지난 1995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영광 3호기를 시작으로 2012년 완공예정인 신월성 2호기에 이르기까지 총 12개 호기가 건설된다.

한편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주요 설비가 모두 공급됨에 따라 신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3월, 2호기는 2013년 1월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LS산전, 스마트 미터 특허

LS산전이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수요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스마트 미터 기술로 국내 처음으로 에너지 수요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전자식 미터 및 이를 이용한 수요관리 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시간에 따라 요금이 수시로 변하는 실시간 요금제나 특정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피크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

LS전선,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무 협약



LS전선이 전선업계 최초로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및 내부 검증을 완료했다. 또 지난달 9일 외부 3자 검증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사업장별, 생산 프로세스별, 설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통계화하는 통합 시스템을 의미한다.

LS전선은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내부 검증을 완료한 상태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7월까지 검증인증서를 획득할 계획이다.

제룡산업, 스마트 그리드 시장 전격 진출

제룡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대용량 전지(NAS전지) 제조기업인 일본의 NGK INSULATORS 및 NGK의 영업 대행회사인 ITOCHU와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스마트 그리드 기반 기술인 신재생 전원분야의 전력 저장시스템 사업을 위한 것이다.

제룡산업과 NGK·ITOCHU 등 3사는 우선 한전의 제주도 스마트그



리드실증단지에 구축 예정인 Smart Renewable(청정에너지 안정 운영) 분야의 전력저장시스템에 NAS전지시스템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앞으로 전기·전자 및 화학플랜트, IT 등 주요 대용량 수용가의 민수시장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